

신영오 교수가 말하는 AIDS와 함께하는 세상 ①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의 효율성

AIDS

신영오
강원대 의대 교수



번째 단계로 대상자는 콘돔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믿어야 한다.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는 접대부가 에이즈감염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증상이 없는 사람중에도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콘돔이 HIV감염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이즈에 대하여 잘 알고 콘돔의 효능을 믿는 것이 곧장 콘돔 사용으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에까지 온 사람도 콘돔의 사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국내의 윤락여성에 대한 설문서에 의하면 고객이 거절하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많은 성적 대상자가 성감도가 낮다는 이유로, 인위적인 기구를

이제 에이즈는 출산 시에 감염되는 등 극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성 매개질환이 되었다. 성매개질환의 예방방법은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위험한 대상으로 하여금 콘돔을 사용하도록 성행태를 바꾸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콘돔사용의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첫 단계로 에이즈와 콘돔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우선 에이즈와 콘돔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해 줘야 한다.

그러나 지식을 전해 주었다고 해서 바로 콘돔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많은 행위에서 아는 것과 실행에는 큰 차이가 있다. 두

사용하는 것이 종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혹은 콘돔은 윤락여 등 특수계층에서만 사용하는 불결한 물건으로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절한다고 한다. 동성애자 사이에서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신하게 만드는 의미 없는 행위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에이즈의 교육과 홍보에서는 이러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들에게 콘돔을 사용하도록 결정하게 해야 한다.

성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용이하지 않으며 언제나 양자간에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여성콘돔이 개발되어 있으나 그 사용은 극히 미미하다. 콘돔 사용은 순간적인 감정 상태, 주위 여건 등에 따라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고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효율적인 콘돔사용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래 많은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다. 단순히 새로이 나타나는 감염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르게 이들중 많은 수가 HIV감염의 마지막 단계인 에이즈환자 상태로 확인된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대중 마스크와 일반인의 에이즈에 대한 관심은 과거 보다 줄어들고 있다. 대중의 무관심은 에이즈예방교육, 홍보를 위하여서는 극히 바람직하지 않으며 마스크의 관심이 줄어들면 일반인은 이제 국내에서 에이즈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지금이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에이즈 같이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이 불투명한 성매개질환에 대하여서는 콘돔사용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가 전파를 감소시키는 첩경임이 태국에서도 이미 증명되었다.

1985년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에이즈가 발생한 이후에 관계당국과 민간자위단체(NGO)들은 나름대로 에이즈예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그 성과도 지대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에이즈발생 15년이 경과된 지금, 그간 사용한 방법의 효율성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이제 까지 사용하여 온 국내 에이즈 교육, 홍보방법을 간단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간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성의 결여이다. 이는 에이즈가 워낙 새로이 출현하였으며 타 전염병과 여러 면에서 상이하여 유행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많은 다른 나라가 전문적인 교육, 홍보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팜프렛 정도의 간단한 홍보책자 이외에 우리 환경에 알맞는 전문서적 등 교육자료의 개발 등이 부족하였다. 우리 나라에 맞지 않은 외국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에이즈의 교육, 홍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문성의 결여는 에이즈교육 및

홍보가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게 된다. 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책자를 보면 구체적인 자료 없이 순결하지는 등의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리고 비전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성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에 관한 문제를 막연하게 다룰 때에 그 효율성이 떨어지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국내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



문 교육, 홍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단순한 상담요원이 아닌 에이즈의 감염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충분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래에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자질을 향상시킨 요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하다.

본 란에서는 단순하게 보이는 콘돔사용을 예로 들어 에이즈 교육과 홍보에서 전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콘돔을 사용하는 하나의 행위에도 이와 같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 듯 에이즈예방 교육과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